



<우리 동호회 최고>- 테니스 동호회 현직 때보다 더 보고픈 이들이 있는 곳

〈이병태 사우〉

5년 전 안식년 시작과 함께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신세계가 펼쳐졌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퇴직 후로 미뤄 놨던 조각을 배우고 싶어서 곧장 소조 학원을 찾았다. 세상 만물을 내 손으로 빚어내는 창작의 즐거움은 신세계의 첫 장을 열어 제겼고 희열했다. 한달 만에 달리고 말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생애 비중 있는 일 중 계획대로 진행된 건 별로 없었다. 안식년이 한달 남짓 지났을 때 안방에서 넘어진 아버지가 골절상으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다. 꿈으로 설계된 계획들은 몽땅 꼬이고 말았다. 계획했던 것과 전혀 결이 다른 신세계가 열린 것이다. 2달간 병원에서 숙식하며 시작된 간병 생활은 퇴원 후 지금까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작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은 한여름의 시원한 한줄기 바람과도 같았다. 다

름 아니라 사우회 테니스 동호회에서 함께 운동하게 나오라는 초대였다. 아버님 간병으로 정신 없어서 퇴직 후 사우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테니스동호회의 이제라도 가입하면 되니 함께 운동 하자는 독려는 내 맘을 시원하게 했다. 뜻밖의 신세계가 또 열린 것이다. '퇴직하고 나서까지 회사 동료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 줄곧 가져온 내 생각은 흔들렸고 그렇게 계획에 없던 새 만남이 시작됐다. 수년 만에 만난 테니스 동호회 옛 동료들은 절친과 재회한 듯 반갑게 맞아줬다. 형편 없는 실력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날 기억하고 불러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함께 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땀방울과 함께 흔적도 없이 증발된다. 쉽터가 된 신세계로 초대된 사우회 테니스 동호회~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보고픈 이들이 거기 있다.

<동호회 소식>



테니스 동호회 (회장한흥규, 총무임창은)
12월 20일 계남 테니스코트

참석사우
조수현, 이강호, 이충용, 이병태, 임창은



음악감상 동호회 (회장 강동하)
새해 첫 모임은 1월 26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막걸리에 트롯트를 즐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회원 30명이 '라 데즈키 행진곡'에 맞춰 막걸리로 건배를 하며 갑진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모임에 제공된 찹쌀 막걸리, 양주, 삼학 소주 등 각종 술과 김치, 고추부각, 진미채 무침 등 푸짐한

안주는 모두 회원들의 협찬과 제공으로 이뤄져 의미가 더욱 깊었고 맛났다. 올 한해가 항상 오늘만 같기를...

참석 사우

강동하, 김복수, 김용정, 김인주, 김춘겸, 민대식, 박건삼, 박내봉, 박 충, 배성례, 변장부, 성준호, 송선무, 송연갑, 오창근, 이근용, 이대근, 이상복, 이은범, 이종녕, 이취형, 이형원, 정기현, 정승화, 조종성, 지병복, 차성모, 최춘식, 현일범



요산요수회 (회장성준호, 총무이명규)
1월 20일 아침 일찍 여의도역에 모여 SBS 본사에서 지원한 셔틀버스를 타고 사우 등 35명은 강원도 철원 한탄강 태봉대교로 향했다. 눈발이 약하게 날리는 한산한 시골길을 지나 새해 첫 트래킹 장소인 한탄강 물윗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쯤. 강 위에 설치된 부교를 따라 6km를 걸으며 맑은 공기와 담소를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동호회 활동의

또 다른 즐거움은 역시 현지 먹거리. 고성정 임꺽정 식당에서 열큰하게 끓여 푸짐하게 차려 놓은 메기매운탕으로 식사와 반주를 곁들여 즐기는 식사를 하며 회원들은 갑진년 새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원했다.

참석 사우

성준호, 박 충, 박건삼, 이무열, 김영덕, 현일범, 조종성, 최춘식, 정기현, 이기석, 전선, 강동하, 이종녕, 차성모, 김경환, 이대근, 김인주, 변장부, 오창근, 손석기, 김용정, 박내봉, 박동주, 이명규



저 SBS 나온 여자예요!

〈조희수 사우〉

작년 연말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하다 어디에 숨어 있다 나온 것인지, 알파벳 대문자 SBS 모형의 파란색 라디오를 발견했다. 어머니! 얼마만 이야... 너, 아직 있었구나. 눈에 안 보여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레 잊고 있었는데. 반가우면서도 지금은 이걸 내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 하니 추억을 부르는 세월의 무심함이구나... 나는 2개의 SBS 배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것은 꿈 많은 중학교 시절, 우리 학교 방송반원들은 교복 옷가에 자신이 방송반원임을 나타내는 SBS(Sookmyung Broadcasting Station)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는데, 그 SBS 배지가 너무나 부러웠던 나는 SBS 배지를 달고 싶은 마음에 한 반에 한 명씩만 방송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 담임선생님께 어렵게 용기를 내서 추천서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준비해 마침내 방송 반에 들어갔다. 지금도 점심시간, 방송을 통해 합격자로 내 이름이 나오며 클리프 리처드의 Congratulation이 흘러나온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나는 마침내 SBS 배지를 달게 된 것이다.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나는 아주 운이 좋게도 SBS에서 일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업(業)으로 두 번째 SBS 배지를 달게 된 것이다. 단발머리 중학생일 때 교복 옷가에 달았던 SBS 배지였는데.. 2개의 SBS 배지는 각각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의 정표(情表)이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때로 일하기 싫은 적도 있었지만, 만화 속 괴물을 실제인 양 무서워하던 어린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와서 우리말 만화 더빙 제작 현장을 견학하고는, 그제서야 아이가 두려움을 떨치고 안심했다며 보내온 엄마의 감사 케이크처럼 보람된 순간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SBS에서의 일과 삶은 내 인생의 절정(絶頂), 화양연화(花樣年華)! 그래서 나는 여러 곳, 다양한 사람들과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저 SBS 나온 여자예요!



당구동호회 (회장 김영식, 총무 윤영준)
교대모임
1월 15일 교대당구장
참석 사우
박영호, 김익성, 김근수, 임종국, 이상만, 이영호, 박영호, 송연갑, 이근용, 이기석, 광고, 이취형, 조종성, 최춘식

서북모임
1월 12일 대화역 스타당구장
참석사우
박영호, 김익성, 김근수, 임종국, 이상만, 이영호, 홍성국, 류상우, 이강호, 송연갑, 이병태, 조종성, 최춘식

사우 동 정

이선명 사우
〈사단법인〉한국방송기자클럽(BJC) 제18대 회장
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1989년 창립된 '한국방송기자클럽'은 6개 회원사의 차장급 이상 기자와 OB기자 1,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병준 사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3월 1일부터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이선명 회장을 보좌해 BJC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문환 사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편집인으로 발탁됐다.
BJC 관련 운, 오프라인 뉴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영범 사우
KT의 핵심 계열사인 KT 스카이라이프의 대표이사
사직에 임명됐다. 연매출 1조원대의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유료 위성방송 사업자이다.

성희용 사우
태광그룹의 모기업인 태광산업 대표이사로 선임
됐다. 성 대표는 지난 6월 티캐스트 대표로 태광그룹에 합류했다.

엄재용 사우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캐스트 대표로 임명됐다.
엄 사우는 티캐스트 상무로 근무하다 승진했다.

허인구 사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
의힘 예비후보인 허 사우는 선거사무소를 확대 이전하고 공천신청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손범규 사우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손 사우는 1월 29일 공천신청을 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신동욱 사우
지난해 12월 29일 TV조선 앵커를 그만 두고
1월 29일 국민의 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신 사우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

유자호 사우
18번째 시집 <시간의 길이>를 출간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인 유 사우는 시집을 내며 "희수를 맞았다. 주변에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살 곳 없이 죽을 곳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윤정수 사우
Exotic 소설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중·단편 소설 집을 e-북으로 출간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들에서 모티브를 따온 단편 5권, 중편 1권의 시리즈물이다.

SBS Contents Hub

제1화 시간 60분!

런닝맨 체험관

런닝맨 멤버가 되어 미션을 완수하자!

런닝맨 체험관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모티브로한 다양한 미션을 60분 동안 체험하는 실내 어트랙션입니다. 서울, 부산, 강릉점에 이어 네번째로 오픈한 <런닝맨 Ep.4 깡깡랜드>에 방문해 미션 최고 점수에 도전해보세요!

위치 부산 서면,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제주 중문

<p>◇ 애도합니다</p> <p>윤영준 부친상(12/14) 홍순철 장모상(1/26) 정성근(보도의정부지국) 빙모상(12/16) 최영범 빙부상(12/17) 이무열 장모상(1/28) 장현규 모친상(12/18) 운군일 모친상(2/1) 옥도일 모친상(12/25) 서경호 부친상(2/1) 조원민 시모상(12/29) 안순복 모친상(2/5) 권오형 모친상(1/14)</p>	<p>◇ 축하합니다</p> <p>미수(米壽, 88세) 희수(喜壽, 77세) 문 근(2/11) 김재순(음2.10) 산수(傘壽, 80세) 김광섭(3.25) 정승화(2/21) <결혼> 이흥재(3/1) 김선갑 딸(2/3)</p>	<p>◇ 회비내신분</p> <p>종신회비 권택수, 김영환, 배재학, 김열규, 차동진, 이선경, 박두선, 이성만, 이상호, 박혜정, 문관식, 이성의, 안성식, 김 박, 서봉경</p> <p>연회비 김국은</p>	<p>◇ 회비안내</p> <p>연 회 비: 40,000원 종신회비: 400,000원</p> <p>우리은행 계좌번호 회 비 납 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p> <p>(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p>
--	--	---	---